

# 🎬 영화 기획 시놉시스 (수정본)

제목: 18원

장르: 실화 기반 법정 드라마 & 블랙코미디

주제: "법관에게,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가?"

## 1. 기획 의도

대한민국에서 법은 국민을 지켜야 하지만, 때로는 국민을 짓밟는 도구가 된다.

영화 \*\*<18원>\*\*은 한 발명가가 20년간 재건축·위조·억울한 형사사건을 겪고, 결국 법관 35명을 상대로 "18원 소송" 110건을 제기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.

"18원"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,

- 욕설처럼 들려 권력자를 조롱하는 풍자,
- 실제로 제기된 소송 금액이라는 충격,
- 정의의 가치를 시험하는 상징.

<부러진 화살>이 교수의 억울한 투쟁을, <변호인>이 변호사의 각성을 다뤘듯, \*\*<18원>\*\*은 법관 집단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한다.

## 2. 줄거리 개요

### 프롤로그 - 동전의 소리

룸살롱. 판사 네 명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다.

"18원 소송을 건 미친놈이 있다더군."

마담이 "네 명이니 72원이네, 내가 갚아줄게"라며 100원짜리 동전을 굴린다.

동전은 빙글빙글 돌다 쓰러지고, 화면 암전.

타이틀: <18원>

## 사건 전개 (11단계 구조)

- 1. 창업의 꿈**  
발명가 주인공, 특히로 번 돈으로 충주에 10,000평 공장 건설. "사회적 기여"의 희망.
- 2. 공권력과 갈등**  
토목업자와 충주시 공무원의 결탁. 공사비 증액 요구 거절 → 산지관리법 위반 고발.
- 3. 자력으로 무죄**  
1심 유죄. 주인공은 독학으로 법 공부. 항소심 무죄, 대법원 확정.
- 4. 재건축 음모**  
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인장 위조. 지에스건설 로비로 김형두 재판장이 교체, 패소 판결.
- 5. 지식의 무기화**  
재판 경험을 편집 →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.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.
- 6. 사법의 보복**  
대법원 고발. 저작권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거부, 불법 압수 절차 무시. 벌금 700만 원.

## 7. 신영애 사건

사법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여인. 허위 고소와 비방이 이어지며 개인적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확장.

## 8. 18원 소송

판사 50명을 상대로 110건, 각 18원 손해배상 소송.

법정에서 외친다: "내 인생 1분의 값어치가 18원입니다."

언론은 '괴짜 소송'이라 조롱하지만, 판사들의 술자리에선 "또 감자(감옥에 보내자)!"라며 비웃음.

마담이 다시 동전을 굴린다. 이번엔 술잔에 빠져 '땡그랑' 소리.

## 9. 강제추행 사건

- **1·2차 고소:** 무혐의. 그는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.

- **3차 고소:** 돌연 기소. 판결문에는 "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."라는 모순적 문구.

- 교도소 독방. 그는 법전 페이지를 벽에 붙이고 항소장을 직접 쓴다.

다시 룸살롱. 판사들이 웃으며 건배:

"두 번은 무혐의였는데, 세 번째는 걸러들었지."

마담이 굴린 동전은 테이블에서 튕겨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.

## 10. 무고·모해위증·변호사법 위반 사건

강제추행 유죄를 근거로 신영애와 김용신이 역고소.

무고·위증·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.

주인공의 진실은 오히려 범죄로 둔갑.

## 11. 끝없는 항쟁

투옥과 소송이 이어지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.

제네바 유엔 인권회의.

작은 상자를 열자,

- 18원 동전 110개,

- 위조된 서류,

- 미완 공장 설계도.

"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의 가격입니다.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."

폐허 공장터, 잡초 사이 피어난 야생화.

다시 들려오는 동전 굴러가는 소리. 암전.

## 3. 주요 인물

- **주인공(김중학):** 발명가, 억울한 재건축 피해자, 18원 소송 제기자.
- **신영애:** 허위 고소와 비방의 중심 인물.
- **김용신:** 배후 조종자, 위증과 로비 주도.
- **판사 집단:** 집단 캐릭터. 술자리·법정에서 풍자적 존재.
- **마담:** 블랙코미디 장치. 동전으로 정의의 부재를 풍자.

## 4. 연출 포인트

- **톤 앤 무드:** 사실적 긴장 + 사회적 메시지 + 블랙코미디 풍자
- **사운드:** 동전 굴러가는 소리, 법봉 두드림, 술잔 건배음 → 정의 조롱의 상징
- **시각적 상징:** 파란 인장(강탈), 18원 동전(정의의 값), 야생화(진실의 생명력)

## 5. 메시지

<18원>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한 싸움이 아니라,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적 민낯을 드러낸다. 관객은 극장을 나서며 자문할 것이다.

“나의 인생 1분은, 과연 18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?”